

## 산욕기 산모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양 영 옥\* · 최 소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는 분만 후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식기관이 임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산모에게 임신중의 변화와는 정반대의 해부, 생리 변화가 특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산욕기 간호는 현재와 미래의 산모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1987; 김인순, 정은순, 1989).

또한 이 시기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확대가족에서는 생생한 역할 모델과 정서적 지지체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인 자녀를 가르쳐 부모가 되는 준비를 시켰다(이자형, 1996; 김명희, 이성은, 1998). 그러나 사회적 변화로서 가정이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산후관리와 신생아 간호를 산모 스스로 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 획득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여성의 직장진출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산모는 퇴원후 산후 신체적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신생아 양육의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된다(박영숙, 조소영, 1990; 유연자, 2001; 양미숙, 2001).

의료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1997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질병별 포괄수가제를 차츰 확대 적용시키고 있으며(최혜련, 1999) 최근 병상회전율을 고려하여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가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산후 자가관리나 신생아 양육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퇴원하게 된다(유연자, 2001). 이처럼 산모들에 대한 추후관리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퇴원이 권장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산욕기간은 가정간호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김혜숙, 최연순, 전은미, 1994; 이재숙, 1998).

가정간호란 규격화 되어 있는 병원에서 수행하던 간호를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안에서 추후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 재활 영역을 포함하는 가정중심의 포괄적인 간호를 실시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감케 하는 효율적인 간호양상이다(김성실, 1985; Widmer & Martinson, 1989).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채택으로 국가 및 공공 의료비 증가가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으로 1990년 가정간호를 법제화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

\* 좋은삼선병원 수간호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을 통해 재가환자들에게 예방적, 지지적,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포괄수가제의 실시와 의료비 선불제 등의 실시로 조기 퇴원환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의 가정 간호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경자의, 1994)

따라서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가정간호사업을 위하여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요구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국내에는 노인이나 말기 암환자, 만성질환자, 수술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요구도 조사(변형숙, 이자형, 1990; 홍여신의, 1990; 박경숙, 1994; 한경자의, 1994; 이소우의, 1997; 윤순영의, 1998)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욕부의 경우 활발한 산욕기 가정간호 사업이 이루어지는 미국(한철우, 김효식, 1989; McIntosh, 1984)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산욕기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요구에 대한 연구는 전은미(1994), 이재숙(1998), 장순복의(1999), 유연자(2001) 등으로 몇 편에 거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도 그 측정도구와 대상자의 분만방법, 출산 시기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는 대상자의 출산 후 시기와 분만력, 분만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유연자, 2001), 본 연구자는 출산 1주부터 6주까지의 산욕기 기간동안의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요구를 반복조사하고 출산시기와 방법에 따른 가정간호요구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욕부 가정간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출산 6주까지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욕부의 가정간호요구도와 가정간호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요구 및 불편감 해결방법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요구를 파

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산욕기산모

임신으로 인해 변화된 생리적 해부학적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출산 후 6-8주사이에 있는 산모를 말하며(최연순의, 1987),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1-6주까지의 산모를 말한다.

### 2) 가정간호요구

퇴원 후 가정에서 임신과 분만을 통한 변화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요구로 본 연구에서는 장순복의(1999)가 개발한 산모-신생아 가정간호요구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산욕기 산모의 가정간호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J시내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2003년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분만 후 퇴원한 산욕부 중에서

- 1) 임신 37주에서 42주 이내에 합병증 없이 분만하였으며,
- 2) 산후 1주일이 경과하였으나 4주 이내로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20명 중 응답이 불충분한 16명을 제외하고 104명을 본 연구대상으로 했다.

자료수집방법은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J시 1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질 분만 및 제왕절개를 한 후 외래를 방문하거나, 해당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후 병원내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이재숙(1998)의 가정간호요구도와 장순복외(1999)가 개발한 산모-신생아 가정간호요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모성별실 담당 간호감독 1인, 분만실 수간호사 1인, 신생아실 수간호사 1인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다. 일반적 특성 18문항, 산모의 건강관리 요구 20문항, 신생아 건강관리 요구 19문항, 가정간호 운영과 관련된 24문항의 총 8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출산과 관련된 특성), 산육기 동안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에 대한 요구, 신체적 및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불편감 해결방법,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도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 2) 일반적 특성과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와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일반적 특성

####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29세가 35.6%로 25세부터 34세 사이가 76.9%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58.7%, 고졸이하가 41.3%였다. 직업은 없는 경우가 62.5%, 있는 경우가 37.5%로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종교는 64.4%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불교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가 35.6%로 응답하였다.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59.6%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7%, 대가족이 17.3%로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많았다(표 1).

#### 2) 출산과 관련된 특성

산육주수는 1주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표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10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24	6	5.8
	25-29	37	35.6
	30-34	43	41.3
	35세 이상	18	17.3
학력	고졸이하	43	41.3
	대졸이상	61	58.7
직업	유	39	37.5
	무	65	62.5
종교	기독교	12	11.5
	천주교	5	4.8
	불교	47	45.2
	무교	37	35.6
기타	기타	3	2.9
	월수입 (만원)		
	100미만	5	4.8
	100-200	62	59.6
201-300	27	26.0	
301이상	10	9.6	
가족형태	핵가족	86	82.7
	대가족	18	17.3

2주가 26.0%로 많았다. 분만형태는 질분만이 53.8%, 제왕절개가 46.2%였다.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43.3%, 우유수유가 19.2%, 혼합유가 37.5%로 응답하였다. 임신 중 합병증은 94.2%가 없었으며, 분만 후 합병증도 96.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기의 성별은 남아가 58.7%, 여아가 41.3%였다. 아기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47.1%, 둘째가 41.3%로 88.4%를 차지하였으며, 셋째도 11.5%였다. 아기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75.0%로 가장 많았다. 산후 조력자는 친정어머니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 24.0%, 시어머니와 친정식구가 각각 10.6%였으며, 산후조력자의 67.4%가 가족이었다(표 2).

### 2. 대상자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

#### 1) 대상자의 신체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

대상자의 신체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는 〈표 3〉과 같다. 산육부 및 신생아 대상 가정간호요구를 조사한 국내 연구가 많지 않아 주로 제왕절개술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재숙(199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은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가 평균 4.53±.6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젖몸살 관리 방법(4.38±.71), 유방마사지

〈표 2〉 출산과 관련된 특성 (N=10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산욕주수	1주	58	55.8
	2주	27	26.0
	3주	10	9.6
	4주	3	2.9
	5주	1	1.0
	6주	5	4.8
분만형태	질분만	56	53.8
	제왕절개	48	46.2
수유형태	모유	45	43.3
	우유	20	19.2
	혼합유	39	37.5
임신 중 합병증	유	6	5.8
	무	98	94.2
분만 후 합병증	유	4	3.8
	무	100	96.2
아기의 성별	남자	61	58.7
	여자	43	41.3
아기의 출생순위	첫째	49	47.1
	둘째	43	41.3
	셋째	12	11.5
아기의 건강상태	건강	78	75.0
	보통	15	14.4
	기타	11	10.6
산후조력자	친정어머니	48	46.2
	시아머니	11	10.6
	친정 식구	11	10.6
	시댁 식구	3	2.9
	산후 산후조리원	25	24.0
	기타	6	5.8

(4.34±.75), 산모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위험 증상에 대한 교육(4.29±.67) 순이었으며 무거운 것을 들기에 대한 주의 및 집안일 시작하는 시기, 치질관리법이 모두 평균 3.63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신체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의 총 평균은 3.99±.42로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숙(1998)의 연구에서도 가정간호 실시시 요구되어 지는 간호관리의 우선 순위 중 신체적 측면에서는 회음 절개 부위의 관리, 유방관리가 높은 순위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2) 대상자의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

대상자의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는 〈표 4〉와 같다.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은 응급처치법에 대한 요구도가 4.58±.52로 가장 높았고, 감염관리가 4.51±.56, 아기가 병원을 방문해야 할 증상이 4.39±.60이었다. 가정간호 요구도가 낮은 문항은 우유병 소독방법이 3.63±.83이었다.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도의 총 평균은 4.11±.50으로 신체관리의 총 평균인 3.99±.42보다 더 높았다. 이는 박영숙과 조소영(1990)의 연구에서 산모의 주된 관심사가 아기라는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요구 중 아기의 울음에 대한 파악, 정상적인 아기의 성장과 발달 파악 순으로 신생아 관리의 우선순위는 본 연구결과와 다르나, 신생아 관리(3.658±.51)가 신체적 관리(3.410±.50)보다 높은 것은 유사하였다.

이와같이 신체관리 및 신생아관리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은 것을 Rubin(1975)의 산욕기 동안의 모성역할 단계와 연관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이 산욕주수 1주가 55.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지며, 요구도가 가장 높은 이 시기가 신생아와 자가간호를 위한 교육의 적정시기임을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의 불편감 해결 방법

대상자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의 불편감 해결방법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산욕기 산모의 산후 신체적 불편감의 해결방법은 '분만한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정 또는 시댁 부모에서 해결한다' 30.8%, '분만한 병원에 방문한다' 21.2%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의 해결방법은 '친정 또는 시댁에서 해결한다'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만한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다'가 30.8%, '분만한 병원에 방문한다'가 10.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신체적 불편감은 분만한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은 친정이나 시댁에서 해결하였다. 한편 이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산모의 신체적 문제 해결 방법은 친정어머니와 상의하였고, 신생아의 양육에 관해서는 분만한 병원을 직접 찾았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상분만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재숙의 연구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술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본 연구대상자와의 차이

〈표 3〉 신체관리에 대한 가정간호요구도

(N = 104)

내 용	Mean	S.D	Rank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	4.53	0.66	1
젖몸살 관리방법	4.38	0.71	2
유방마사지법	4.34	0.75	3
산모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위험 증상에 대한 교육	4.29	0.67	4
모유수유와 관련된 간호	4.22	0.83	5
산후 분비물의 이상상태 파악 방법	4.17	0.69	6
좌욕하는 방법	4.14	0.75	7
흉배얇이 관리	4.10	0.74	8
산후 영양과 음식가리기	4.01	0.70	9
골반 근육강화 운동에 대하여	3.98	0.66	10
산후체조나 운동실시 방법	3.96	0.69	11
성생활과 피임방법	3.95	0.80	12
산후 우울증	3.85	0.91	13
머리감거나 목욕하는 시기 및 방법	3.82	0.84	14
젖 삭이는 방법	3.80	0.93	15
변비예방법	3.76	0.80	16
수면 및 휴식취하기	3.75	0.78	17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할 이유와 시기에 대한 교육	3.63	0.69	18
집안일을 시작해도 좋은 시기에 대한 교육	3.63	0.64	19
치질 관리법	3.63	0.90	20
Total	3.99	0.42	

〈표 4〉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도

(N = 104)

내 용	Mean	S.D	Rank
응급처치법에 대하여	4.58	0.52	1
감염 예방법	4.51	0.56	2
아기가 병원을 방문해야 할 증상	4.39	0.60	3
아기의 예방접종	4.36	0.66	4
황달 구별법	4.35	0.62	5
정상적인 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대하여	4.24	0.68	6
구토해결법	4.22	0.69	7
기저귀 발진의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4.13	0.63	8
대소변 관찰법	4.12	0.71	9
배꼽관리법	4.09	0.71	10
아기의 울음의 의미파악 및 달래기	4.09	0.85	11
아이와 엄마의 상호작용 증진 방법	4.06	0.73	12
신생아 수유의 빈도와 양	4.02	0.82	13
아기 피부관리	3.97	0.79	14
아기의 적합한 실내온도 및 습도유지에 대하여	3.96	0.76	15
아기 체온 측정법	3.87	0.78	16
아기 목욕시키는 법	3.80	0.74	17
트림시키는 법	3.71	0.75	18
우유병 소독방법	3.63	0.83	19
Total	4.11	0.50	

라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어려운 문제를 전문적인 관리자 보다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와 상의하였고, 전화를 이용한 상담으로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정확한 치료와 간호가 실시되었는지

가 불확실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3. 대상자의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

〈표 5〉 대상자의 신체 및 신생아 관리의 불편감 해결방법 (N=10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산후 신체적 불편감 해결	부모(친정, 시댁)	32	30.8
	분만한 병원(전화)	36	34.6
	분만한 병원(방문)	22	21.2
	인근병원방문	5	4.8
	기타	9	8.7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 해결방법	부모(친정, 시댁)	41	39.4
	분만한 병원(전화)	32	30.8
	분만한 병원(방문)	11	10.6
	인근병원방문	9	8.7
	기타	11	10.6

대상자의 가정간호사업운영에 대한 요구도는 〈표 6〉과 같다.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 동안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는 필요하다가 66.3%, 필요하지 않다가 33.7%로 응답하였다. 이재숙(1998)의 연구에서도 67.9%가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원하는 가정간호 실시기관은 분만한 병원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호협회 등 전문가 단체 27.9%였으며, 보건소는 1.0%에 불과하였다. 이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산전진찰을 받은 병원의 가정간호사에서 받고 싶다가 70.6%

로 산전진찰을 받은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병원 중심 가정간호보다 보건간호사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은 대상자들이 자기가 직접 산전진찰을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보건간호사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어떤 제도하에서라도 가정간호를 받기를 원하는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었다.

원하는 간호사의 방문시기는 퇴원 후 1주일 이내가 37.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퇴원 후 2주일 이내

〈표 6〉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 (N=10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가정간호에 필요성	유	69	66.3
	무	35	33.7
원하는 가정간호 실시기관	분만한 병원	34	32.7
	간호협회 등 전문가 단체	29	27.9
	보건소	1	1.0
	기타	6	5.8
원하는 간호사의 방문시기	퇴원 후 1주일 이내	39	37.5
	퇴원 후 2주일 이내	27	26.0
	퇴원 후 3주일 이내	2	1.9
	퇴원 후 4주일 이내	2	1.9
방문횟수	1회	9	8.7
	2회	33	31.7
	3회	21	20.2
	4회	7	6.7
비용지불	의료보험적용시	39	37.5
	값이 적당하면 이용	31	29.8
가정간호를 받고 싶은 우선 순위	신체적 문제(질분비물 등)	41	39.4
	정서적 문제(산후우울증 등)	32	30.8
	변화된 가족관계 적응을 위한 간호	11	10.6
	산후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11	10.6
	신생아 관리	9	8.7

가 26.0%로 다음 순이었고, 퇴원 후 2주일 이후부터 1.9%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방문횟수는 2회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회가 20.2%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욕부들은 퇴원 후 1주-2주 사이에 2-3회의 가정간호를 요구하였다.

비용지불은 의료보험 적용시 이용한다고 37.5%였고, 값이 적당하면 이용하겠다고 29.8%로 대상자들이 산욕 기간동안 가정간호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숙(1998)의 연구에서는 퇴원 후 2주 이내, 1주이내의 순이었으며 횟수는 45.6%가 2회 이상 22.5%가 4회, 18.1%가 3회라고 하였다. 또한 56.1%가 의료보험 적용시 적극 이용한다고 하였고 33.4%가 적용되지 않아도 적당한 값이면 이용한다고 하였고 10.5%는 상관없다고 하였다. 지불 방법에 있어서는 방문시 마다 일정액을 지불한다가 35.9%, 퇴원 비용에 포함시킨다가 32.2%, 소요 시간당 일정액을 지불한다가 23.1%를 차지하였다. 이제숙(1998)은 가정간호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가 더불어 가정간호 서비스 비용에 방문비, 교통비를 포함하고 비용 부담 방법 및 현행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 의료 전달 체계내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간호를 받고 싶은 우선순위는 신체적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39.4%), 산후우울증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30.8%)가 다음으로 응답하여, 신체적 문제 및 신생아 관리와 함께 산욕부의 정서적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제도의 변화 및 사회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질적인 산욕기 간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가정간호사의 방문간호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에 맞추어 적절한 수가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며, 가정간호 의료수가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와의 관계는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연령, 종교, 직업, 월수입, 의료보험 형태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정간호 요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출산과 관련된 특성과 가정

간호 요구와의 관계에서는 산욕주수와 가정간호 방문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기 산욕주수일수록 가정간호 방문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전은미(1994)는 퇴원 후 첫 24시간이 산욕부에게 간호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은옥, 이선자, 박성애(1981)의 연구에서 퇴원시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와 추후관리에 대하여 응답자중 33.6%가 미흡하다고 하였고, 87.5%가 추후관리에 대해 찬성하였다. 이자형(1996)은 오늘날 병원에서의 입산부관리는 주로 산전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대부분 입산부나 태아의 이상유무와 이에 따른 의학적 관리에 치중되어 산모에 대한 자가간호능력을 파악하거나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산욕기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의 신체관리 및 신생아 관리에 위한 가정간호는 산모에게 가장이라는 현실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관리 및 신생아 간호와 관련된 자가 간호 기술을 배움으로써 자기신뢰감이 증진되고, 의료기관에서도 병원중심의 가정방문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는 82.7%가 핵가족, 81.8%가 산욕기간 1-2주, 첫째 아기가 47.1%, 산후조력자의 67.4%가 가족이었고, 신생아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산욕부의 신체관리보다 더 높았다. 신체 및 신생아 관리의 불편감을 병원에 전화하거나, 가족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66.3%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며, 퇴원후 1-2주 사이에 2-3회의 가정간호를 요구하였다. 비용지불은 의료보험 적용시 37.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질적인 산욕기 간호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가정간호 제공이 요구되며, 가정간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수가 개발 및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표 7〉 산욕주수와 가정간호 방문 횟수 (N=10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F값	P	
산욕주수	1주	58	55.8	2 570	.035
	2주	27	26.0		
	3주	10	9.6		
	4주	3	2.9		
	5주	1	1.0		
	6주	5	4.8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욕기 가정 간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산욕주수에 따른 산욕부의 가정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시내에 위치한 1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2003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분만한 6주이내의 산욕부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이재숙(1998)의 가정간호요구도와 장순복외(1999)가 개발한 산모-신생아 가정간호요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총 81문항의 설문지이며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출산과 관련된 특성), 신체 및 신생아 관리, 가정간호사업 요구는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가정간호 요구와의 관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30-34세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58.7%, 직업은 없는 경우가 62.5%, 종교는 64.4%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불교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100-200만원이 59.6%로 가장 많았고,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2.7%였다. 산욕주수는 1주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주가 26.0%로 많았다. 분만형태는 질분만이 53.8%, 제왕절개가 46.2%였다.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43.3%였다. 임신중 합병증은 94.2%가 없었으며, 분만 후 합병증도 96.2%가 없었다. 아기의 성별은 남아가 58.7%, 여아가 41.3%였다. 아기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47.1%, 둘째가 41.3%였다. 아기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75.0%로 가장 많았다. 산후조력자는 친정어머니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산후조력자의 67.4%가 가족이었다.
2. 대상자의 신체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도가 높은 것은 회음부 및 제왕절개 상처 관리(4.53±.66), 젖몸살 관리 방법(4.38±.71), 유방마사지(4.34±.75), 산모가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할 위험 증상에 대한 교육(4.29±.67)이었고, 신체적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의 총 평균은 3.99±.42였다. 신생아 관리에 대한 가정 간호 요구는 응급처치법(4.58±.52), 감염관리(4.51±.56) 순으로 높았으며, 요구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우유병 소독방법(3.63±.83)이었다. 신생

아 관리에 대한 가정간호요구도의 총 평균은 4.11±.50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관리의 총 평균인 3.99±.42보다 더 높았다.

3. 산욕기 산모의 신체적 불편감의 해결방법은 '분만한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다'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정 또는 시댁 부모에서 해결한다' 30.8%, '분만한 병원에 방문한다' 21.2% 순이었다. 신생아 양육의 어려움의 해결방법은 '친정 또는 시댁에서 해결한다'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만한 병원에 전화로 문의한다'가 30.8%, '분만한 병원에 방문한다'가 10.6%이었다.
4.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 동안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는 '가정간호에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6.3%, '필요하지 않다'가 33.7%로 응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원하는 가정간호 실시 기관은 분만한 병원이 32.7%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간호사의 방문시기는 퇴원후 1주일 이내가 37.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퇴원 후 2주일 이내가 26.0%로 다음 순이었다. 횟수는 31.7%가 2회, 20.2%가 3회라고 하였다. 또한 37.5%가 의료보험 적용시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29.8%가 적용되지 않아도 적당한 값이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간호를 받고 싶은 우선 순위는 신체적 문제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문제가 30.8%로 다음 순이었다.
5. 대상자의 연령, 종교, 직업, 월수입, 의료보험 형태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정간호 요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출산과 관련된 특성과 가정간호 요구와의 관계에서는 산욕주수와 가정간호 방문회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산욕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적용한 간호만족도 및 효과, 산욕기 가정간호 수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산욕기 가정간호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진행되어 타연구 결과와 충분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명희, 이성은 (1998). 산욕기 산모의 간호요구조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122-135.
- 김성실 (1985). 가정간호 요구 및 수행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인순, 정은순 (1989).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김혜숙, 최연순, 전은미 (1994). 제왕절개분만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사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4), 696-705.
- 박경숙 (1994). 조기퇴원 수술환자의 병원중심 가정간호 효과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숙 (1994). 조기퇴원 수술환자의 병원중심 가정간호 효과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숙, 조소영 (1990). 산욕기 초기 동안 정상 분만한 산모의 관심사에 관한 연구, 간호학논집, 4(1).
- 변형숙, 이자형 (1990). 임종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2.
- 양미숙 (2001).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자 (2001). 산욕부의 가정간호요구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 윤순녕, 김매자, 서문자, 한경자, 박성애, 박영숙, 하양숙, 김금순, 송미순, 이재주, 박연환 (1998). 지역 사회 가정간호 사업 운영 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 논문집, 12(1), 서울대학교간호대학 간호과학 연구소, 97-117.
- 이소우, 하양숙, 김금순 (1997). 한국 도시 노인의 가정 간호 요구도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학논문집, 11(2), 206-229.
- 이은옥, 이선자, 박성애 (1981). 퇴원시 환자의 간호요구도 조사, 간호학회지, 11(2).
- 이자형 (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8(1), 97-107.
- 이재숙 (1998). 산욕기 산모의 가정간호 요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박정숙, 김은숙 (1999). 산후 6개월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가정간호요구-후향적 방법-, 대한간호학회지, 29(3), 507-517.
- 전은미 (1994). 산욕부와 신생아의 가정간호사례연구, 모자보건학회지, 4(1), 3-11.
- 최연순, 조희숙, 장춘자 (1987). 모성간호학, 서울 : 수문사.
- 최혜련 (1999).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전망, '99년도 사업보고서, 397.
-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송미순 (1994). 일개 군지역의 가정간호요구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4(3), 484-498.
- 한철우, 김효식 (1989). 미국의 가정간호사제도를 살펴 보고, 대한간호, 28(4).
- 홍여신 외 8인 (1990). 추후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 퇴원환자 가정간호 시범사업 운영 연구, 간호학회지, 20(2).
- McIntosh, I. D. (1984). Hospital effects of maternity early discharge, Medical care, 22(7).
- Rubin. (1975). Maternity nursing stops too so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October, 1680-1684.
- Widmer, A. G., & Martinson. I. M. (1989). The continuum of care: Parters in Acute and chronic care. IN I. Martinson., & A. Widmer(ed) Home Health Care Nursing, Philadelphia: W.B. Saunders.

-Abstract-

Key concept : Postpartum mother, Home health care need

##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 of Postpartum Mothers

Yang Young-Ok\* · Choi. S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for effective

\* Good Sanaun Hospital Headnurs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tervention for home health care need of postpartum mothers and newborn babies.

The subjects were 104 wome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03 to June, using a 81 item questionnaire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for frequency, Mean,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mean of care needs of newborn babies was higher than that of physical demand of Postpartum mothers. The mean of physical demand of Postpartum mothers was  $3.99 \pm .42$ . The mean of care needs of newborn babies was  $4.11 \pm .50$ .
2. The most highest mean of physical demand of Postpartum mothers was wound care for caesarean section and episiotomy( $4.53 \pm .66$ ), and then breast engorgement care( $4.38 \pm .71$ ). The most highest mean of care needs of newborn babies was emergency care methods( $4.58 \pm .52$ ), and then infection control( $4.51 \pm .56$ ).
3. 66.3% of postpartum mothers positively desired consultation hospitals centered home care need during postpartial periods.
4. Influential variables of home health care need was postpartial periods. they wanted the first week after delivery, more frequently visiting of home care nurse. 37.5% of postpatial mothers wanted visiting within 1 weeks after delivery. 31.7% wanted 2 times/week.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o make a program in nursing of home health care for postpartum mothers, and to keep on studying repeatedly in order to raise the number of objects and to find related variables.